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 “권력독점 시도”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2월 19일 1심 선고
尹 반국가세력 규정… “국가 존립·안전 위협”
尹 “국가·헌정 지키기 위한 국가긴급권 행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임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짚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꾸짖었다.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선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근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현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한일관계도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야가 “여러분이 모국에 방문했을 때 국적이나 출신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문제 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민 손으로 만든 국민주권정부는 올해도 실용외교를 통해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챙기고 보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발언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4·3유족 등 역사의 피해자께 사과”

14일 일본 간사이 재일동포 간담회서 발언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일동포들이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며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한 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가슴을 끊을하게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나라현의 아스카무라에 가면 사신도가 그려진 무덤이 있고, ‘도래인’이라 불리는 우리 선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다”며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이처럼 수천 년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

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재정권 시절에는 일본 거주 국민을 간접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 피해자 유가족 등도 오늘 함께했고, 우토로 마을주민,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민족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 나리현에서 열린 간사이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온 점을 안다. 오사카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일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 피

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민족의 공

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한일관계도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야가 “여러분이 모국에 방문했을 때 국적이나 출신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문제 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민 손으로 만든 국민주권정부는 올해도 실용외교를 통해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챙기고 보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발언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현장 점검 추진

선수들 직접 참여해 진행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이 본인들이 뛸 경기장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장애인 선수들이 직접 경기장을 점검하는 ‘체감형 현장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33개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체전기획단과 관련 부서, 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참여해 실사용자 관점에서 경기장 전반을 살핀다.

휠체어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있는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접근성·안전성·편의성 등 세 가지다. 외부 출입 동선과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엘리베이터 등 이동권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경기장 출입구와 통로의 장애물, 장애인 화장실, 관람석, 점자블록, 안내 표지 등 세부 시설도 꼼꼼히 점검한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 중 선수 이동과 직결된 사안을 최우선으로 조치하고,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 정비도 오는 6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에 참여한 한 휠체어 선수는 “과거에는 경기장 문턱이 높아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장애인 선수가 직접 경기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올해 지하수 연장 허가 대상 3배 이상 증가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중 올해 유효 기간이 도래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1603공으로 지난해 483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먹는샘물 2년, 생활·공업용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면 허가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단 월 취수 허가량이 1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 연장 신청이 제출되면 시설 기준과 수질 기준, 취수 허가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제주도는 특정 시기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연장 신청이 집중될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를 두고 조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24년부터 연장 허가 때 필요한 수질 검사를 일괄 시행해 민원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양씨 사직공파 선략장군공계 종친회 임시총회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종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6년도 제주양씨 사직공파 선략장군공계 종친회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종친님께서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17시

장소 삼성회관 양씨종회 본부 사무실(2층)

-의 안

- 1. 임원선출
- 2. 종친회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3. 기타

●연락처

회장 양창호 휴대전화 010-5697-0539

제주양씨 사직공파 선략장군공계 종친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 州 리모델링

辛 (신) 一 (일) 祉 (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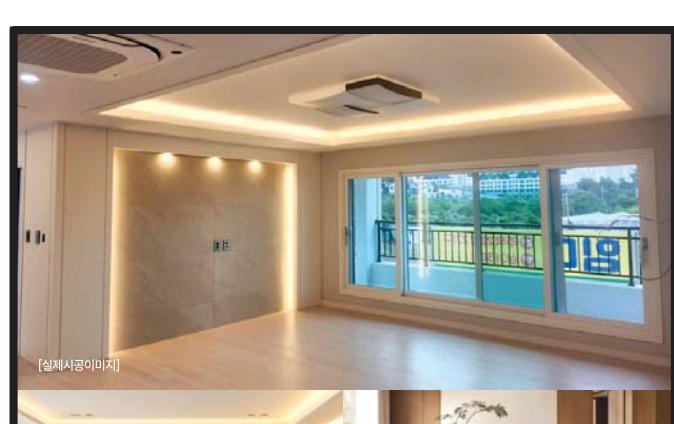
책임시공, A/S 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 064.742.6234

문의 | 010.7599.6234



[설짜시공이미지]



[설짜화상송이보로침대]



[설짜화상송이보로침대]



[설짜화상송이보로침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